

사유상의 '미륵' '반가' 호칭 부적절한 단어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勒菩薩思惟半迦像) → 사유상(思惟像)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포즈

인간이면 누구나 사유한다. 사유해야 인간의 존재이유를 추구할 수 있다. 사유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며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사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철학한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른 시기에 사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불상 조각이나 불상회화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현상이다.

신타트라 태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충격을 받을 때 마다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발을 갈 때 쟁기에 쪼개지나오는 에베레를 작은 새가 채가고 그 작은 새를 다시 독수리가 채가서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광경을 보고 깊은 사유에 빠진다. 또 왕궁을 떠나 잔타카와 칸타카를 되돌려 보내고 나서 출가할 때에도 깊은 사유에 든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는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신타트라 태자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 위에 두고 그 구부린 무릎위에 팔꿈치를 대고 그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얼굴의 턱을 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경배의 대상인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모습의 불상에는 태자상(太子像)이나 사유상(思惟像)이란 명문(銘文)이 있을 뿐, 굳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

기지 않았다.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태자상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신타트라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모든 상이 그렇지 않아 단정 짓기도 어렵다. 중국의 불상에는 대체로 명문이 많은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유상 명문에서는, 태자사유상(太子思惟像, 太和 16년銘 등), 사유상(思惟像, 正光5년銘 등), 사유불(思惟佛, 北魏 삼존불 석상), 사유일구(思惟一龜, 興和 2년銘), 백옥상(白玉像, 白玉龍樹思惟像(武定5년), 태자상(太子像, 天保4년銘) 심유불(心惟佛, 大通元年, 西魏 碑像) 등으로만 명시하여 있다. 그 가운데 태자상과 사유상이 가장 많다. 광배의 상주(像主, 邑子)들 가운데 미륵불주(彌勒佛主)와 사유불주(思惟佛主)를 별도로 명기된 것으로 보아 사유상을 미륵불로 단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상 조각 가운데 국보 78호인 금동사유상과 국보 83호인 역시 금동사유상 등 인간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이어서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 걸작품들이 거의 원상 그대로 지금까지 전하여 왔다는 것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적적인 일이다. 그 밖에 돌로 만든 사유상이 있고 바위에 새긴 마애불(磨崖佛)이 있고 동으로 만들어 도금한 금동사유상 등 사유상은 특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매우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그 특이한 자세인 불상을 누구라고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 구태여 말한다면 신타트라 태자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든 국보 두 작품을 모두 '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勒菩薩思惟半迦像)'으로 명명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륵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또 '반가(半迦)'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의 오류 그대로 답습

동양 삼국 가운데 이러한 자세의 금동불상에 미륵보살이라고 새겨놓은 예는 오직 하나 뿐이다. 나는 그 작품을 오사카 근처의 야쥬지(野中寺)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으며 위작인지 의심이 갔었다. 그런데 어느 일본학자가 명문을 검토한 결과 명문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위작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위작(偽作)인 야쥬지 사유상이나 일본의 문헌 등을 미루어 우리의 사유상을 미륵보살이라 부르게 된 경향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미륵이라 입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석가보살과 미륵보살은 모두가 보리수 밑에서 사유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왜 하필이면 56억년 후일까? 그렇다면 미륵불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석가모니불이 영원한 부처님인데 구태여 미륵불이 다시 올 리 없다. 그리고 설혹 미륵보살이 존재하더라도 성불하리라는 수기(授記)

를 받은 뒤 도솔천에 올라가 현재 천인(天人)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재의 보살이다.

미륵보살이란 석가보살의 다른 이름이어서 사유상이란 이처럼 이중(二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태여 말하자면 석가보살과 미륵보살이라는 두 성격의 보살상이 사유상에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사유상>이라 불러야 하며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단정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반가'라는 말을 검토해보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결가부좌(結跏趺坐)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결가부좌란 무엇인가. 의자 위가 아니라 아래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여 앉는다는 말로 두 발바닥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앉는 수행자의 자세이다. 두 손 여래와 보살이 취하는 자세이다. 잠선할 할 때에는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나 신체적으로 반듯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결가부좌를 틀어야 한다. 그런데 사유하는 상은 의자에 앉아서 취하는 자연스러운 자세여서 결가부좌를 틀 수 없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반가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어찌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에 놓는데 반가란 말인가! 한 다리라는 말은 있어도 반쪽짜리 다리는 장애자의 다리일 수는 있다. 일본학자가 만든 반가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미륵이라는 특정한 존명도 피해야 한다. 무릇 모든 인간이 취하는 영원한 보편적인 자세로 사유하는 거룩한 모습일 뿐이다.



국보 78호 금동사유상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우영 당귀 · 두부 김밥
△재료(4인 기준)
우영당귀김밥
밥 4공기, 김 4장, 우영 100g, 당근 30g, 청양고추 2개, 깻잎 12장, 당귀 50g
조리장 - 간장 1큰술, 청장 1큰술, 맛국

물 1/4컵, 조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두부김밥
밥 4공기, 우영당귀 4줄, 당근 4줄, 단무지 4줄, 오이 4줄, 두부 1/2모

△만드는 법
① 우영당귀김밥의 소 재료는 가늘게 채 썬다.
냄비에 맛국물과 간장, 청장, 조청을 넣어 살짝 졸인 후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조림간장을 만든다.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둘러 우영, 당근, 청양고추를 넣어 볶다가 조림간장을 넣어 수분이 없도록 볶아 식힌다.
②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후

김에 얇게 펴고 깻잎에 졸인 야채를 넣고 당귀와 함께 돌돌말아 어슷하게 썬다.
③ 두부김밥의 소는 사방 1cm 정도의 굵기로 썬다. 두부는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우영은 초절임 장아찌를 사용하거나 맛국물에 부드럽게 졸여낸다.
④ 김에 밥과 5가지의 소를 넣고 돌돌 말아 썬다.

모듬 초밥
△재료(4인 기준)
○ 밥 4공기, 배합초 3큰술, 배합초(식초 2큰술, 매실액 2큰술, 소금 1작은술)
○ 각색 파프리카, 단호박, 버섯, 오이, 시마, 케일, 양배추, 호박잎, 배추속대 등

○ 약고추장, 견과류 쌈장 약간

△만드는 법
① 밥을 지을 쌀은 백백 문질러 충분히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황기 우린 물에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후 밥이 뜨거울 때 배합초를 넣어 팔고루 섞어 식힌다.
② 버섯, 파프리카, 단호박은 얇게 저며 썰어 구운 후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쌈 재료는 찹쌀에 찌서 준비한다.
③ 밥을 초밥 형태로 쥐어 재료를 얹고 김으로 띠를 두른다. 쌈밥에는 약고추장이나 견과류 쌈장을 넣어 한 입 크기로 썬다.

김밥의 핵심은 '밥'
요즘처럼 폭풍 찌는 삼복더위에는 먹는 것마저 힘들릴 때, 한 입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보기에 좋은 김밥이나 초밥으로 입맛을 살려보자. 김밥의 핵심은 밥이다. 때문에 쌀은 많이 문질러 씻어 지어야

입안에 넣었을 때 고슬고슬하니 사르르 퍼지는 느낌을 즐길 수 있으며 밥을 많이 흘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엔 황기 우린 물로 밥을 짓게 되면 담백하면서도 기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게 되면 고소한 맛이 좋고, 새콤 달콤 배합초로 간을 하게 되면 맛을 돋구우고 쉽게 상하지 않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당귀는 하늘이 내려준 신약이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다. 당귀잎은 특유의 향과 씹사름한 맛으로 여름철 기가 허해질 때 달콤 짭조름 매콤하게 졸인 우영과 함께 김밥을 싸서 먹게 되면 그 맛에 손을 댄 수 없을 정도다. 쌈밥은 배합초 간을 하여 담백하게 먹어도 좋으나 약고추장이나 쌈장을 넣어 먹는 것도 깔끔한 맛이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세출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현옥) 가액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흙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종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죽염 125g 40,000원
가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잠염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씨가모니불 -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안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